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30일 12:00(정오)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3. 30. (화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
담당과장	산업부 산업환경과 김태우 과장 (044-203-4240)	담 당 자	서민하 사무관(044-203-4246)
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채은 과장 (044-201-7340)		이승준 서기관(044-201-7341)

‘원료-제품-폐기-재생원료’ 순환경제 정책포럼 출범

- 학계, 시민사회,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내로 한국형-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(로드맵) 수립 예정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와 환경부(장관 한정애)**는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원장 윤제용)과 함께 **한국형(K)-순환경제로의 전환**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**‘제1차 케이(K)-순환경제 정책포럼’**을 개최한다.

○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**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10대 추진과제** 중 하나인 **‘순환경제 활성화’**를 목표로,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.

○ 이를 통해 **학계, 시민사회, 산업계**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순환경제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, 연말까지 **한국형-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(로드맵)**을 만들 예정이다.

□ 이번 **1차 정책포럼**에서는 우선, 한국형-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**자원순환 전 과정의 관리방안**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**원료 단계**를 주제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바이오플라스틱 등 **혁신 소재 개발·상용화 방안**과 제품 생산 시 **재생원료**의 **이용율**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.

○ **제조 단계** 주제로 제품의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**친환경디자인**의 적용, 폐수·부산물 등의 **순환이용**을 **높이는 스마트 공정**, 디지털에 기반한 **저탄소 혁신 공정**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.

○ **재생 단계** 주제로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**재제조 산업 확대**, 자원가치가 높은 **금속 재자원화**(폐전자제품 등)·**도시유전**(폐비닐 등) 활성화, **폐배터리**와 **태양광 폐패널** 등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등도 검토한다.

□ 또한,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를 이행·확산시키기 위한 **소비자, 기업, 도시·국가** 차원의 **실천전략**도 검토될 예정이다.

○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탄소발자국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**친환경 표시**(에코 라벨링) **강화**, 불필요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**전자제품을 수리받을 권리**의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.

○ 기업의 친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한 **환경정보 공개 확대**와 함께 국가 내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**폐기물 수출입 최소화** 방안과 **자원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** 방안도 검토한다.

○ 아울러, 유럽연합(EU)에서 제시*하는 7개 주요 품목 중 **플라스틱**과 **배터리**를 사례로 순환경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.

* 포장재, 플라스틱, 섬유, 전자제품, 배터리·자동차, 음식물, 건설

□ 끝으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**지표 설정방안**이 논의될 예정이다.

○ 자원순환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**총괄지표를 설정**하는 방안과 함께, 단계별로 **순환경제 성과**를 나타낼 수 있는 **개별지표**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.

□ 한편,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%가 산업·수송·건설·농축산 등에서의 제품 생산·소비와 관련되는 만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순환성을 강화하는 순환경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.

○ **순환경제**는 **생산-소비-폐기**로 이어지는 **선형적 구조**에서 **탈피**하여 **자원 사용**을 **최대한 줄이고** 발생한 **폐기물**은 **자원**으로 **재순환**시킴으로써 **온실가스 배출 저감**에 **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정부 관계자는 "순환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의미한다"면서,

○ "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될 한국형-순환경제의 비전과 실천전략이 폐기물 제로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"이라고 말했다.

붙임 1. 포럼 개최계획.
2. 전문용어 설명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서민하 사무관(☎ 044-203-424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1차 K-순환경제 정책포럼 개최계획

□ 포럼 개요

○ (**일시**) 2021.3.31(수) 10:00 ~ 12:00

○ (**장소**)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(서울 중구)

○ (**주관**)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(KEI),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

○ (**참석**) 오세천 공주대 교수(좌장), 자원순환정책관, 산업정책관 등 포럼 위원 50명 내외

○ (**내용**) 순환경제 정책포럼 세부과제,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등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세부내용	비 고
10:00 ~ 10:10	인사말씀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
	인사말씀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
10:10 ~ 11:00	Session Ⅰ : 순환경제 정책포럼 추진방향	
	- (발제) 순환경제 세부과제 구성(안)	환경부
	- (토론) 순환경제 정책방향과의 정합성, 구성안의 체계성, 적정성 등	참석자 전원
11:00 ~ 11:10	break time	
11:10 ~ 11:50	Session Ⅱ : 순환경제 지표 및 통계기반 구축	
	- (발제)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(안) 및 통계구축 방향	KEI 조지혜 실장
	- (토론) 지표의 정합성, 적정성 등	참석자 전원
11:50 ~ 12:00	- 토론 정리 및 마무리 말씀	좌장

붙임 2 전문용어 설명

□ 순환경제와 순환경제 사회

○ 기존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모델로,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모델

○ 폐기물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, 전환·산업·수송·건물·농업·산림 등 사회 전반의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

□ 쓰레기 제로화

○ 폐기물을 물질 재활용, 화학적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은 소각 후 잔재물을 완전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이 없는 상태

□ 탄소중립

○ 온실가스 발생과 흡수의 평형이 맞춰지는 사회로 파리협정('16년 발효), UN 기후정상회의('19.9) 이후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확산